



3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열린 'ACC 브런치 콘서트' 무대에 오른 탤런트 손현주와 미국인 가요금 연주자 조세린씨.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공>

### 문화전당 'ACC 브런치 콘서트' ... 손현주의 이야기가 있는 국악콘서트

가요금 명인 황병기 선생의 대표작 '침향무'가 진잔히 흐른다. 가요금 연주자는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미국인 재클린 클라크. 한국 이름 조세린(배재대 교수)이다. 그녀 곁에서 조용히 연주를 듣는 이는 탤런트 손현주씨와 개그맨 고명환씨.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 브런치 콘서트' 두번째 행사 '손현주의 이야기가 있는 국악콘서트'가 30일 오전 11시 예술극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국악 컨셉에 맞게 바닥에 앉아 진행했다. 객석을 향해 큰 절을 올리며 공연을 시작한 손씨는 진솔한 이야기와 구수한 입담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이병헌 등과 동기로 1991년 KBS 공채 14기에 합격하며 탤런트 생활을 시작한 그의 뿌리는 연극이었다. 그 때 국악과 인연을 맺었다.

"연극판은 참 힘들어요. 극단 생활로는 돈을 못 벌죠. 당시 국악하는 선생님들을 따라다니며 공연을 많이 했었죠. 자연스럽게 등과도 진속해졌고, 국악 프로그램도 애청합니다. 단가도 좀 하구요."

그는 조씨가 '성금연류 가요금 산조'를 연주할 땐 군데 군데 투입세도 넣으며 분위기를 잡았다.

원래 꿈은 신학을 공부하고 종교음악을 하는 거였다. 그 꿈은 아직도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다. 중학교 2학년 때 이화여고 유관순 기념관에서 관련한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가 인생의 전환점

이었다. 윤복희, 유인촌 등 명배우들이 출연한 작품을 보고 "내가 무대에 서면 어떤 모습일까" 상상했다. 학교 연극반에 들어갔고, 대학로 연극관에서 활동했다.

탤런트가 됐지만 7~8년 무명 생활이 이어졌다. 첫 배역 대사는 지금도 기억한다. "간호원 수혈 준비하세요." 이 마저 잘못한다고 질려 대사 없이 그냥 뛰어가는 장면으로 대체된 아픔이 있었다. 이후 '모래시계' 등에도 출연했지만 좀처럼 기회를 잡지 못했다. 그의 이름을 각인시킨 건 드라마 '첫사랑'이었다. 송채환과 부부로 출연, 무명 작곡가 역을 맡아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라는 대박 히트곡을 낸다. 길거리 음반으로 60만장 가량 팔렸다.

"밝고 연기에 목숨을 거는 배우"로 기억하는, 그래서 지금도 그녀를 떠올릴 때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최진실과 호흡을 맞춘 '장밋빛 인생'은 연기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2013년에는 '신사의 품격'의 장동건을 제치고 '추적자'로 SBS 연기대상도 수상했다.

지난해 간단한 암수술을 받았던 그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했다. "매일 보는 하늘도 어느 날은 맑고, 어느 날은 흐립니다. 똑같은 날이라고 해도 잠깐만 옆을 돌아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해요. 인생은 살 만합니다."

그는 연기 인생의 시작이었던 연극판으로 돌아간다. 작품 '민들레'를 통해서다. "고향인 대학로로 돌아갑니다. 많이 설레고, 불안과 기대도 있습니다. 사별한 아내의 무덤을 찾는 남자의 이야기예요. 30대부터 70대까지 계속 아내의 묘를 찾아가는 그와 그의 아내가 주고 받는 이야기를 통해 삶을 돌아보는 따뜻한 작품입니다. 광주에서도 공연할 기회가 있으면 합니다. 또 안성기, 조진웅씨와 함께하는 영화 '사냥' 개봉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는 2004년 자신이 창단, 단장을 맡고 있는 장애인 '에반젤리합창단'에 깊은 애정을 표했다. 이날 함께 한 고명환씨 역시 재능기부로 에반젤리합창단 공연에 참여하며 인연을 맺어왔다.

"15명으로 시작한 합창단이 지금은 100명이 됐어요. 발달 장애 등을 갖고 있는 이 친구들이 한국의 악보를 외우는데 6개월이 걸려요. 노래를 부르면서 치유되는 모습을 보면 감동입니다. 음악은 치유입니다. 제 인생의 스승이 있다면 언제나 진중하고 진실하게 살라고 했던 아버지와 아이들입니다. 올라가는 길은 알려주는데 내려오는 길은 알려주지 않는 게 이 바닥입니다. 에반젤리와 땀을 흘리지 않았다면 제 자신도 포기하며 많이 힘들었을 듯해요. 나눔은 곧 채움입니다. '손현주 언 안 될 거야'라고 10년을 이야기한 감독이 있었어요. 오기가 발동해서 오히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인생에는 이런 사람도 필요합니다(웃음)."

상무지구가 허허벌판이었던 시절, 곱창집을 열었다. 망한 사연, 수험생과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 등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준 그는 마지막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를 부르며 유쾌한 무대를 연출했다.

한편 이날 공연에서는 가요금병창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조세린씨가 단가 '백발가' 등을 선보였으며 고수를 맡은 조종훈씨는 고려시대 연주됐던 도자기 장구를 재현, 창작곡을 들려줬다.

'ACC 브런치 콘서트'는 '바리톤 김동규와 쓰리 스프라노'(4월27일), '최태지, 발레를 이야기하다'(5월11일) 등으로 이어진다. 티켓 가격 2만원. 4월15일까지 9회 공연을 13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ACC 패밀리 티켓'도 판매중이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샌드위치와 커피가 제공된다. www.acc.go.kr. 문의 1899-556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문화재단 '창의예술학교' 참가자 모집

'바퀴달린학교' 등 4개

광주문화재단이 '2016 창의예술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 운영되는 학교는 ▲북구문화의 집(관장 정민룡) '바퀴달린학교' ▲문화약방(대표 정경이) '재미마중 노리학교' ▲동구문화원(원장 조연탁) '오디세이 예술학교' ▲마당집(대표 추현경) '바람이 머무는 마을학교' 등 4개다.

초등학생부터 70대까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창의 예술학교'는 삶의 기술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져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삶의 경험학교 형식으로 진행된다.

'바퀴달린학교'는 다양한 삶의 경험을 신체 활동을 통해 풀어내는 노작학교로 초등학교가 대상이다. '주말건축-옥탑건축가', '땅과예술-농기(결개그림) 프로젝트' 등으로 진행된다. 문의 062-268-1420.

'재미마중 노리학교'는 놀이·예술과 지역문화공간을 체험하는 학교.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청춘반 '반짝반짝 골든에이지-다시 청춘하

다'를 운영한다. 가족반은 '놀이찾는 아이들, 함께하는 어른'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강의 장소는 빛고을아트스페이스 2층 문화예술작은도서관이다.

cafe.naver.com/munhwayuk-bang. 문의 062-670-7968, 010-7914-2678.

'오디세이 예술학교'는 지역 문화·예술·인문·자원을 배우고 삶을 경험하는 창의 학교다. 지역 인물을 탐구 주제로 삶을 배우는 경험학교 '생생 인물', 지역설화를 소재로 아이디어를 실험하는 창의학교 '콘텐츠창작' 등 2개 과목으로 나눠 운영된다. gjdonggu.kccf.or.kr. 문의 062-225-5815.

'바람이 머무는 마을학교'는 버려진 자원을 되살려 마을을 디자인하는 학교로 신가동 거주 청소년과 성인이 대상이다. 매주 수요일, 토요일 '똑딱 똑딱 예술창고 만들기', '조물조물 마을디자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www.facebook.com/madangzzip. 문의 070-8883-425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 대장정

피아니스트 서현일 4월 1일 금호아트홀서 17~20번 연주

피아니스트 서현일씨는 지난 2014년 베토벤 소나타 전곡 연주회를 시작했다. 32곡에 달하는 작품을 모두 연주하는 대장정이다. 당초 지난해 9차례 연주회를 통해 시리즈를 마무리지을 예정이었지만 외부 연주가 이어지면서 좀처럼 시간을 내기 어려웠고, 연주회는 올해까지 이어진다.

오는 4월 1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리는 다섯번째 무대에서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17번 '템페스토'를 비롯해 16번, 18번, 19번, 20번을 들려준다.

호남예술계 출신으로 광주에 거주하며 독일로 유학을 떠난 서씨는 드레스덴 국립음대에서 수학했으며 귀국 후 서울시립교향악단 현대음악 시리즈인 '아르스 노바' 객원 피아니스트로 활동했다. 광주시향, 대전시향 등과 협연했으며 지난해 한국음악협회가 수여하는 한국음악인상 신인상을 수상했다. 현재 전남대, 광주대, 광주영체 교육원 등에 출강중이다.

티켓 가격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www.hyunilseo.com. 문의 010-3646-79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당신의 광장! 젊음의 광장! U-square

수비드[sous-vide] 떡갈비,삼겹살 & 돈까스

아이엘리시아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월요일	12,500원	8,500원
월요일	14,500원	9,000원
월요일	5,000원	5,500원

수비드 삼겹살, 떡갈비, 돈까스 등 50여가지 다양한 메뉴 무한리필 (평일 16시이전 입장고객 1,000원 할인)

최상의 식재료에 최고의 셰프의 감성을 담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식

파충류 박물관 5회연속 선정

세미나  
연회장

상견례  
가족모임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525-2111